

신포천변전소 建設 결사 反對

주민터전 매입·이주대책마련 후 건설주장

한국전력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포천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가평에서 일등을 거쳐 신북면까지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신북면 갈월리 산 16-1번지에 신포천변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 이 지역은 산림보전 구역으로 이 일대 3만3천여평의 임야가 변전소부지로 선정됐다.

한국전력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신북면 주민들은 반대의를 분명히 밝히고 지난달 21일 '신포천변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유석근씨, 간사에 이관영씨, 면이장협의회 최봉배씨를 주축으로 청산8개리(계류1·2리, 고일1·2리, 삼성담1·2리, 갈월1·2리)

이장들과 주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변전소가 들어선다면 머리 위에 거미줄이 쳐지는 꼴이 아니겠느냐?"며 "산림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양심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주민들은 "지난 9월 3일 신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345kV의 신포천변전소 건설을 위한 설명회에서 송전탑 건설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변

전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전력과 포천시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천시에 관광특구 지정을 요청하기로 하고 있는 시점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은 1957년도부터 국가의 산림 녹지정책과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계획 조립된 지역이다.

유석근 위원장은 "한전측의 마을 부

지 전면매입이나 주민이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절대 변전소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청산 8개리 주민들은 10월말 주민 518명의 서명이 담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및 선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포천시청, 경기도청, 이철우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보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앞으로 2000명의 반대서명을 더 받아 본격적인 저지운동을 펼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마지막 정부 추곡수매

영북면 자일리 영북농협창고 앞마당에서는 지난 3일 올해 첫 건조벼 추곡수매가 열렸다. 2004년도 정부수매약정 체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추곡수매는 자일리 3천가마를 시작으로 이번달 30일까지 총 7만9,837가마의 수매가 이루어진다. 이번 수매는 정부가 실시하는 마지막 추곡수매로 내년부터는 각 농협 등에서 수매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포천·연천출장소의 이종태 검사관이 벼의 상태를 체크하며 등급을 매기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진대,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최 22일까지 접수마감

대진대학교에서는 다음달 26일 교내 중앙도서관 6층과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학관 2층)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접수 중 선택하면된다.

참가신청서, 원고 1부, 녹음 Tape 또는 비디오 Tape(6mm) 1개 중 1개를 선택해 사전 심사후 본선 진출자를 가려낸다.

2인 이상 참가할 경우에는 팀명을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대진대학교에서 주최한 이전대회 대상 및 금상수상자는 출전할 수 없다.

이번 대회는 영어 말하기(Speech or Story Telling) 및 역할극(Role Play) 대회로 20개팀 내외의 본선 진출팀 중에서 경연을 치르게 된다.

참가신청 접수는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본선진출자는 24일 오후 1시에 대진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ejin.ac.kr/~ool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539-124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대체의학이 21세기를 바꾼다⑩

대체의학 시리즈를 마치며



전세일 포천중대대체의학대학원장

건강의 정의가 "건강한 몸"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으로 되고, 여기에서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건강"이라고 했다가 드디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진정한 건강한 것이다"로 변천해 왔다. 따라서 전인건강의 개념도 바뀌었다. 의학에는 속칭 서양의학, 동양의학, 그리고 대체의학이 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서양의학 이외의 모든 의학을 대체의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양의학을 대체의학 속에 포함시키지만,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제외한 다른 의학들만 대체의학으로 간주한다. 대체의학의 상당한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 대체의학의 과학이 건강의 영적 요인에 관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의학의 세(勢)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우리나라가 동서의학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총체적(總體的), 종합적(綜合的), 전일적(全一的)의학을 창출해 낼 가장 좋은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학의 창출과 이의 세계화는 과학적 연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과학화(科學化)"가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개념이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실험과 검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만을 수용하고 인정할 뿐이며, 동시에 현재 수용하고 인정받는 지식과 이론이라하더라도 다른 연구에 의해 계속 개선되고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과학의 특성이며 장점이며 계속 발전시킬 안전장치인 것이다.

대체의학이라 하는 것은 이론과 시술이 체계화된 하나의 의학이 아니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일부의 비주류 의학의 단편적 지식과 시술법 그리고 산재해 있는 민간요법들을 통털어 부르는 명칭이다. 지금은 200여 가지의 의술 조각들이 대체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한 범주 속에 집어넣어 놓여져서, 점차 연구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 작용 기전과 임상효과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대체의학의 일부는 서양의학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동양의학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의학은 우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양대 산맥에 속하게 되고, 이때는 "서양의학의 대체의학이 동양의학이요 동양의학의 대체의학이 서양의학"이라는 사고방식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십년이 될지 아니면 수백년이 될지는 모르나 훗날 언젠가는 그냥 "의학"이라 부르는 하나의 의학이 될 것이다. 현재는 대체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 확인하는 한편 철학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참된 의과학자들의 출현을 어느 때 보다도 더 갈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社 告

불우 이웃 돕기 창구 개설

본지는 연중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된 성금 및 물품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전달여부를 본란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창구운영은 본지 조사위원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전화: 031-542-1507 불우이웃돕기 창구계좌번호 농협 585-02-172934(포천신문)

포천신문



Dong Sung Uni-Tech.Co.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에 완벽을 추구하는 동·성·유·니·테크



동성유니테크

생 산 품 목

- ◆접착테이프
- ◆순간접착제
- ◆우레탄폼
- ◆수입마스킹
- ◆스프레이·락카
- ◆양면테이프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8 / 전 화 : (031) 532-8004 / 팩 스 : 031-532-5792 / 대 표 장 재 수